

Session III

문학 속의 전염병

유 호 식
서울대 불문학과

- 『성경』 : 사무엘 하 (다윗왕)
-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 왕』 (BC 5세기)
- 보카치오, 『데카메론』 (1351)
- 헤르만 헤세,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1930)
- 코로닌, 『천국의 열쇠』 (1941)
- 알베르 카뮈, 『페스트』 (1947)
- 주제 사라마구, 『눈먼 자들의 도시』 (1995)
- 필립 로스, 『네메시스』 (2010)

조선일보, 2017. 10. 20

조선일보, 2017. 11. 3

명렬독자들이 선택한 노벨문학상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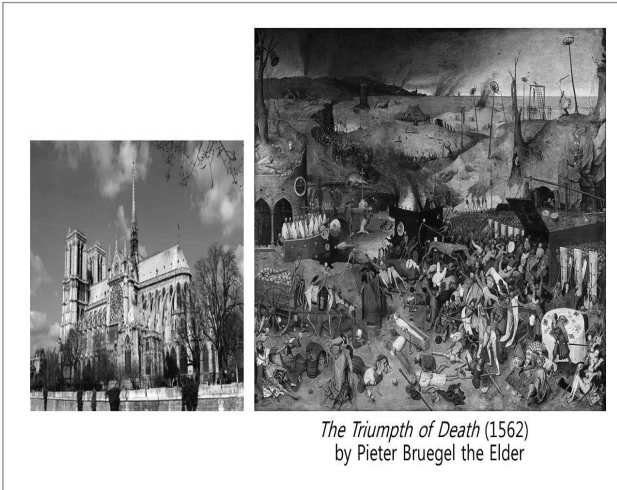
노벨문학상 평점 톱10			
순위	제목	작가	평점(참여자인원)
1	눈먼 자들의 도시(1995)	주제 사라마구	4.03(16,330)
2	백년의 고독(1967)	마르케스	4.02(9,416)
3	시드르타(1822)	베르만 헤세	3.98(7,209)
4	이방인(1942)	카뮈	3.96(6,338)
5	후작(1998)	롯시	3.95(8,132)
6	내 이름은 빨강(1986)	오르한 파묵	3.84(9,335)
7	생쥐와 인간(1937)	존 스타인벡	3.84(1,926,880)
8	빌라비드(Beloved - 1987)	토니 모리슨	3.77(382,770)
9	노인과 바다(1952)	헤밍웨이	3.73(793,046)
10	파리대왕(1954)	알리앵 글로망	3.64(2,145,081)

자료: Goodreads(회원수 6500만명, 평점은 5점 만점)

1	헤르만 헤세	데미안	(61표)
2	에니스트 헤밍웨이	노인과 바다	(60표)
3	주제 사라마구	눈먼 자들의 도시	(59표)
4	알베르 카뮈	이방인	(58표)
5	필립 로스	네메시스	(48표)
6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39표)
7	가즈오 이시구로	나를 보내지 마	(38표)
8	가와베타 야스나리	살국	(34표)
9	윌리엄 골딩	파리대왕	(30표)
10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백년의 고독	(29표)
11	가즈오 이시구로	남아 있는 나날	(25표)
12	오르한 파묵	내 이름은 빨강	(24표)
13	모옌	붉은 수수밭	(21표)
14	사무엘 베케트	고도를 기다리며	(14표)
15	빌리언 알베르 카뮈	페스트	(11표)
	인드리 지드	좁은 문	
	엘리스 먼로	Dear life	


하위징아

Georges de la Tour (16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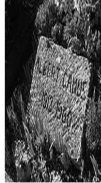


알베르 카뮈 (1913-1960)

- 코타르 랑베르
- 파블루 신부 vs 리외
- 타루 그랑



- 페스트의 죄수들
- 약에 대항하여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파블루 신부

1차 설교 - <아이의 죽음> - 2차 설교 - 죽음


<1차 설교> :

"부름을 받는 자는 많지만 선택된 자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과 은총' -> 죄지은 인간 -> 페스트=징벌 -> 약의 유용성

<2차 설교> : 신부가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자신의 전적인 포기과 자기 개성에 대한 경멸을 전제"

리외 : 이해와 공감

"내가 관심 갖는 것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급한 일은 환자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페스트에 걸렸던 사람들에게 우호적으로 증언하기 위해,
적어도 그들에게 가해진 불의와 폭력에 대한 기억을 남기기 위해, (...)
인간에게는 경멸해야 할 것보다 찬양해야 할 것이 더 많다는 것만이라도 말하기 위해"